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분기 사회서비스 최신 동향 안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분기 사회서비스 최신 동향 안내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LATEST TRENDS IN SOCIAL SERVICES
FOR THE SECOND QUARTER

INDEX

0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패러다임 변화

- 초고령사회 돌봄 패러다임 전환 및 법적 기반 구축 04

02 통합돌봄 혁신 사례 분석

- 진안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06
- 횡성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형돌봄 사업 08
- 경상남도통합돌봄지원센터 09
- 대전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 10

03 결론 및 정책 제언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 12

0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패러다임 변화

Paradigm Shift in Community Integrated Care

- 초고령사회 돌봄 패러다임 전환 및 법적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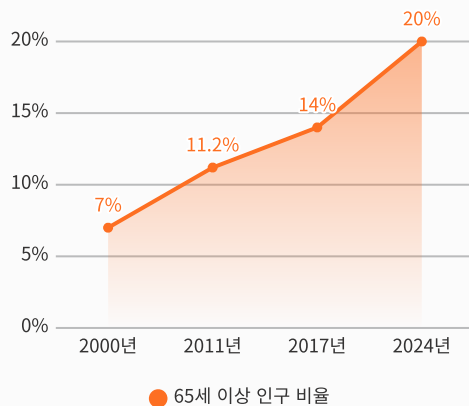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패러다임 변화

초고령사회 돌봄 패러다임 전환 및 법적 기반 구축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의 가속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에 도달하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함.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든 이후 7년 만에 변화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임.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돌봄 대상자의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 비중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 및 돌봄 수요의 복합화·고도화를 초래하며 서비스 제공의 난이도를 구조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가족 돌봄 기능의 와해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전체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독거노인) 비중이 2024년 기준 22.1%에 달하며, 핵가족화와 부양 의식 변화로 인해 과거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던 돌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 이로 인해 공적 돌봄 체계로의 전면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사회적 비용의 급증과 재정 지속 가능성 위기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돌봄 부재로 인해 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심화됨. 2024년 기준 노인 진료비는 48.9조 원을 돌파하며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제도적 기반 마련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및 정책 전환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한 실행력 강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제정됨에 따라, 그간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분절되었던 서비스 연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계 개편

과거 시설 수용 중심의 '관리형 복지'에서 벗어나 복합적 욕구를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로 정책기조가 전환됨. 2026년 법안의 전국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되고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패러다임 비교 분석 >

구 분	과거 (기존 돌봄)	현재 및 미래 (통합돌봄)
핵심 가치	시설 수용 및 관리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공급 주체	기관별 분절적 공급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서비스 범위	신체 수발 위주	의료 + 복지 + 주거 + 기술
대상자 관리	사후 처방적 관리	데이터 기반 선제적 위기 예측
주요 수단	방문요양 등 인적자원	인적자원 + ICT(AI·IoT)

02

통합돌봄 혁신 사례 분석

Analysis of Innovative Cases in Integrated Care

- 진안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 횡성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형돌봄 사업
- 경상남도통합돌봄지원센터
- 대전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

2-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 백운마을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추진 배경

전북 진안군 백운면은 전체 주민의 40.3%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안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치매 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을 내부에서 이들의 안전과 일상을 돌보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면 내에는 마땅한 의료시설이나 요양기관이 없어 어르신들은 먼 읍내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오로지 가족의 돌봄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정든 마을과 이웃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을 아우르는 '백운형 커뮤니티 케어'를 직접 구상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생적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 의지가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이 되었다

주민 주도형 자치 돌봄 사업 주요 내용

1. 흰구름복지센터 중심의 맞춤형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농한기 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겨울철 농한기부터 흰구름복지센터를 개방하여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협약 병원과 연계한 치매 예방 인지능력 향상 교육 및 기초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주민 강사 중심의 취미 교실

마을 주민들의 재능 기부와 전문 강사 초빙을 결합하여 격월 단위의 다각적인 커리큘럼 운영

디지털 및 기록활동

예술 및 정서 케어

신체 활력 증진

민간 자원 연계

세대 간 지혜 전수

2. 생애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지역 복지 거버넌스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형 케어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별 건강 상태, 일상생활 능력, 시급한 개선 사항 등을 정밀 파악하고 개별 욕구에 최적화된 돌봄 솔루션 제공

마을복지사 자원봉사 조직화

마을별로 돌봄 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적 자원을 전수조사한 후, 이를 '마을복지사' 등의 자원봉사 조직으로 체계화하여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

백운 공동체 사회복지 협력망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면 내 10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력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원 대책 수립

2-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 백운마을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주민 주도형 자치 돌봄 사업 주요 내용

3. '마을회관 공동밥상 반찬나눔'을 통한 영양 개선 및 공동체 회복

마을돌봄 밥상지기 운영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로 구성된 '밥상지기'가 매주 일요일 90명분의 국과 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마을회관으로 전달

수혜 지역 확대 및 주민 참여

2025년 기준 6개 마을(무등, 번덕, 상동, 석전, 오정, 윤기)로 운영 중이며, 각 마을 대표자들이 밥 짓기와 배달, 용기 반납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 주최 형식으로 운영

4. 주거 환경 개선 및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U-Safety' 실천

태양광 야간안전 센서등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독거 어르신 및 노인 부부 50가구를 선정하여 현관, 계단, 마당 등 취약 지점에 야간 센서등 보급

낙상 사고 선제적 예방

노안 및 시력 저하로 밤길 보행이 위험한 어르신들의 주거지에 주민 봉사자 10여 명이 직접 방문하여 등을 설치함으로써, 요양시설 입소의 주원인인 낙상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생활 밀착형 기능 보강

하절기 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방충망 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등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태양광 센서등

현관·계단·마당
취약 지점

낙상 예방

요양시설 입소의
주원인인 낙상 사고 방지

방충망 개선

하절기 해충 피해 방지

2-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횡성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형돌봄 사업

추진 배경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은 초고령화 지역이면서도 산간 지형이 험해 어르신들이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병원에 가기 위해 반나절을 써야 하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이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는 '의료-돌봄 통합 모델'이 설계되었다

농촌지역 고위험군 맞춤형돌봄 사업 주요 내용

1.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통한 농촌 특화 모델 구축

농촌형 모델 및 AIP 실현

고령사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정립 및 '살던 곳에서의 노후(AIP)' 실현 추진

민·관·공 거버넌스 구축

강원사회서비스원 주도로 지자체,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간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및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2. 방문의료 및 재택의료센터 중심의 다학제 통합 지원

재택의료 서비스 실시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실시

취약지 보건·복지 통합

산간 오지 등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횡성군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지원 체계 가동

3. 산간 오지 고위험군 대상 ICT 스마트 안전망(U-Safety) 강화

ICT 상시 안전망 구축

가구 간 거리가 멀고 인적 돌봄이 닿기 어려운 고립 가구 대상 ICT 기반 상시 안전 시스템 구축

AI 케어콜 및 위기 예측

기상악화및방문공백시시상담사를활용한'강원형케어콜'안부확인및빅데이터분석기반의선제적위기예측관리

4. 고령친화 주거 환경 개선 및 이동형 돌봄 인프라 실증

낙상 예방 주거 수리

낙상사고예방을위한안전손잡이,경사로,미끄럼방지타일시공등농촌노후주택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집중추진

이동형 건강 서비스

ICT건강체크장비를탑재한'스마트건강돌봄버스'순회를 통한 기초검진,원격건강상담및디지털기기교육제공

2-3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통합돌봄지원센터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

추진 배경 및 체계

산간 및 도서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경남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적극 도입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작동하는 24시간 상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주요 내용

1. 인공지능(AI) 스피커 중심의 정서 및 생활 케어

인공지능 스피커는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어르신의 '24시간 동반자' 역할을 수행

- 5개 자치구 82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되어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 업무 지원
-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공공 서비스로 즉시 연결하는 민간사례관리지원단으로서 기능

2. 생활감지센서(CW Radar) 기반의 과학적 안전망

돌봄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고도화된 기술

- 인체에 무해한 24GHz 마이크로 도플러 기술을 활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생체 신호를 감지
- 재실 여부, 활동량뿐만 아니라 호흡량, 심박수, 체온을 실시간으로 분석
- 대학병원과의 협업으로 검증된 임상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급상황(의식 상실 등)을 즉시 검출하여 골든타임을 사수

3. 부정발화 대상자 심리 상담

스피커를 통해 "죽고 싶다", "힘들다" 등 부정적인 발언이 감지될 경우, 케어매니저가 1차 상담을 실시

- 고위험군 판정 시 센터 내 전문 인력을 통해 심리 척도 검사 및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차 전문 기관으로 연계

4. 의료 연계 퇴원 환자 지원

중증 질환으로 퇴원한 환자들에게 기기를 우선 지원하여 재가 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차단

2-4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

추진 배경

대전광역시는 대도시 지역의 특성상 이웃 간 교류가 단절되어 발생하는 '도시형 고독사' 문제가 심각했다. 공공 행정만으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은둔형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인적 안전망 구축에 집중했다

민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 사업 주요 내용

1. 주민 중심의 인적 모니터링 및 복지 연결고리 역할

- 고독·고립 위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공공 복지 지원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 수행
 - 5개 자치구 82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되어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 업무 지원
 -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공공 서비스로 즉시 연결하는 민간사례관리지원단으로서 기능

2. 전문 자격을 갖춘 현장 중심 인력 운용

-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유급 자원봉사자로 인력을 구성하여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확보
 - 방문 상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사례관리' 전담 수행을 위해 각 행정동 현장에서 보라미가 활동 중이며,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 및 위기 대응력 강화

3. 데이터 기반의 주요 사업 수행 실적

현장 밀착형 활동을 통해 축적된 구체적 사례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대상자 방문 상담

전화 안부 상담

신규 사례 발굴

민간 자원 연계

전문 사례관리 연계

4.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위기 대응

- 행정동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공공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은둔형 위기 가구의 발굴 및 관리 강화
 - 밀착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대상자 맞춤형 복지 솔루션 제시
 - 지역 사회 내 자발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기 징후 발견 즉시 대응하는 선제적 사례관리 시스템 정착

03

결론 및 정책 제언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

3 결론 및 정책 제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사례관리 및 위기 예측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돌봄 혁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돌봄은 사고 발생 후 조치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며, 기관별로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어 대상자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정책 제언

ICT 기기(AI 스피커, IoT 센서 등)를 통해 수집된 생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돌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 단순히 고독사를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수면 패턴이나 활동량 변화를 AI가 분석하여 질병이나 우려 상황을 사전에 포착하는 '예방적 돌봄 모델'로 진화해야 함
- 공공(행정망)과 민간(스마트 기기)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민간기관의 역할 확대

[운영 체계 고도화: 기능 간 연계 · 조정 기반 통합돌봄 실행체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 기능간 연계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확보 되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작동할 표준화된 연계 · 조정 절차 및 운영 모델은 아직 초기단계임

정책 제언

강원·경남 사례와 같이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 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을 하나로 묶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함

- 의료진과 복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사례 회의'를 제도화하여, 대상자에게 의료 처방과 생활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는 통합 솔루션 체계 구축 필요
- 지역별 특성(농촌형, 도시형)에 맞는 특화 모델을 민간기관과 사회서비스원이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전파하는 역할 강화

3 결론 및 정책 제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

주민 주도형 자치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공동체 혁신: '살던 곳에서의 노후(AIP)'를 위한 지역 자생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공공 예산에만 의존하는 돌봄은 재정적 한계가 있으며, 외부 인력 중심의 서비스는 지역 사회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책 제언

진안 백운마을 사례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사회적 협동조합 등)'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함

- 주민 요양보호사 양성, 마을 공동밥상, 주민 안전 점검단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치 돌봄 모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돌봄을 단순히 '시혜적 복지'가 아닌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인식 개선 사업 병행 필요

맺 음 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은 단순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용과 관리'에서 '공존과 존엄'으로 전환하는 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제껏 우리는 효율성을 이유로 어르신들을 정든 집에서 분리하여 시설로 모시는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당사자의 삶의 질 저하와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에 직면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기술(Smart)이 사각지대를 메우고, 협력(Governance)이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며, 공동체(Community)가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삼박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강원, 경남, 전북 등 각 지역에서 싹트고 있는 혁신적인 사례들은 표준화된 국가 모델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익숙한 동네에서 이웃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완수해야 할 책임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다학제적 협력과 데이터 기반의 예방적 돌봄 체계가 현장에 뿌리 내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라는 파고를 넘어 '돌봄 안심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분기 사회서비스 최신 동향 안내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LATEST TRENDS IN SOCIAL SERVICES
FOR THE SECOND QUARTER

참고 문헌

1. 통계 자료 및 국가 지표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2023 건강보험통계연보』
- 통계청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 독거노인비율」
- 국회예산정책처(NABO), 『NABO 추계인구전망: 2025~2045』

2. 연구보고서 및 공공기관 간행물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연구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I』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연구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II』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3. 주요 기관 웹사이트 및 혁신 사례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https://gangwon.pass.or.kr>)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통합돌봄지원센터 (<http://gnai.pass.or.kr>)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https://bwcare.quv.kr>)

4. 언론 보도 및 학술 기사

- KBS 뉴스 (2026.03.17), [현장속으로] 말벗 넘어 인생의 벗으로...우리 곁의 'AI 돌봄 기술'
- 스포츠서울 (2026.02.10), 「강원사회서비스원, 농촌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현장방문」
- 뉴스프리존 (2026.02.09), 「경상남도통합돌봄지원센터, 취약노인 대상 지원사업 진행」
- 신아일보 (2025.12.16),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보라미 활동으로 돌봄 사각지대 대응 성과 살피다」
- 강원일보 (2025.11.25), 「횡성군 통합돌봄사업 역량강화 나서」
- 무진장뉴스(2025.09.23), 「진안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야간안전 센서등 50개 설치」
- 뉴스프리존 (2025.08.27), 「대전시사회서비스원 '3만 건 돌봄 지원' 보라미 상반기 성과 공유」
- 세계일보 (2025.07.07), 「강원사회서비스원 개발 '농촌지역 통합돌봄모델' 관심... "돌봄사각지대 해소"」
- 뉴전북신문 (2025.07.02), 「진안군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어르신 가정 방충망 교체·수리」
- 무진장뉴스(2025.05.08), 「진안 백운 어르신들, 오순도순 함께 식사하세요!」
- 전북도민일보 (2025.02.25),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은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야”」
- 충청뉴스 (2024.12.19), 「대전사회서비스원, 돌봄으로 대전 복지의 미래를 열다」
- 충청뉴스 (2021.03.15), 「대전사회서비스원, 보라미 담당자 간담회 개최」